

지평선산단 기업투자 러브콜 쇄도

김제시 - 입주기업 5개사 협약 체결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김제시는 27일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지평선일반 산업단지과 백구농공단지 등에 투자하는 5개사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이건설 김제시장, 진흥전북도 정부부지사와 투자 협약 체결 5개 업체의 대표이사과 정호영 전라북도 부의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각 기업

별 투자계획은 우선 기존 지평선산단 입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조립식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주)광스틸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삼동허브(주)로 (주)광스틸은 80억원을 투자해 50명 신규 고용하고, 삼동허브(주)는 124억원 투자 1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특장차 업계 대표주자인 (주)진우SMC와 (주)신흥티지는 특장차

전문단지인 백구농공단지에 투자를 결정했다.

익산이 본사인 (주)진우 SMC는 부지면적 2만8,608㎡(약 8,653평)에 87억 투자 신규 고용 30명, (주)신흥티지는 멀리 부산에 본사를 두고 1만8,966.6㎡(약 5,737평)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로 23명을 고용하게 된다.

김제시 대표 식품회사인 한우물영농조합 역시 현 공장 인근부지에 증설 할 계획으로 208억원 투자 55명의 고용 창출하게 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러시아, 호주 등 해외시장을 개척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미국 코스트코 납품계약에 의한 확장으로 향후 김제쌀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북한의 6차 핵 도발 강행,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대립 등 기업들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제에 투자를 결정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기업 성장의 새로운 획이 되고 나아가 각 기업이 김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추석 식재료 알뜰구매 꿀팁

제수용품 전통시장 구매시 대형마트 대비 23% 저렴

진흥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전주상공회의소와 도내 경제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27일(수),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전북도는 이번 명절 대목기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을 '별도민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여 시·군·기관·단체·기업 등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송하진 도지사가 추석 을 맞아 익산장 5일장을 방문, 장보

기행사를 가졌고,진흥 정부부지사도 이날 전주 신중앙시장을 찾아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살펴보고 도민들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표현했다.

이날 신중앙시장을 찾은 진흥 부지사는 "전통시장은 이제 단순하게 물건만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보고 즐기고 맛보고 쇼핑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더 많은 고객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한가위 제수용품은 대형마트와 비교해 전통시장이 무려 23%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7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주)에어랩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전북특구 액셀러레이팅 공개 데모데이'를 연 가운데, 솔라시도코리아(주) 등 5개사와 1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계약 체결을 맺었다.

전북특구본부 5개사 엔젤투자 '어깨동무'

1억여원 규모 계약 체결 스타트업 기업 육성 속도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7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주)에어랩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전북특구 액셀러레이팅 공개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구본부가 집중 지원 중인 (주)에어랩 등 8개사의 IR발표와 솔라시도코리아(주) 등 5개사에 대한 약 1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계약 체결식으로 진행된 이번 데모데이는 국내 엔젤, VC 등 투자자 포함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체결기업은 ▲솔라시도코리아(주)(탄소복합재 적용한 솔라패널) ▲(주)에어랩(비강압입형 마스크) ▲(유)주현(Tilt Rotator), ▲(주)하트페

이스(사카잉키 추출물 및 마치현 추출물을 함유하는 스킨케어 제품), ▲(주)엘과워(금속연료전지를 활용한 비상용 랜턴)이다.

전북특구본부는 16년도부터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비스마트(주), α&Co Korea를 선정"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투자유치와 글로벌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데모데이는 17년도 지원사업으로 집중보육중인 8개사를 외부투자자에게 첫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비강압입형 마스크 생산업체인 ▲(주)에어랩을 시작으로, ▲아크컴퍼니(스마트 자동환풍기), ▲셀러드파이(VR건축검증시스템 및 건축정보 VR 서비스) ▲엔투인(수정을 이용한 전자기용기기) ▲(유)ISTK3(발효한방 바이오 질염개선 천연 여성청결제) ▲쑈우렛(탄소발열체를 이용한 전

기 탄소보일러) ▲(주)투인테크(상수도 밸브실 및 계수변 보호통) ▲(주)하트페이스(사카잉키 추출물 및 마치현 추출물을 함유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8개사가 기업별 사업과 전략, 비전 등을 투자자들 대상으로 발표하고 모의투자와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8개 기업이 발표하는 과정을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모의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자금도 집중투자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말했다.

전북도 미래산업과 전병순 과장은 "도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투자유치 지원으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문건위 관광의 날 행사 참석 업계 종사자 감사인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가 27일 제44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

금일 전주르인호텔 백제홀에서 열린 관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광산업은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산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2017년 전북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한 단계 관광분야에서 도약하는 한해가 되고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친절과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해 주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 도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한완수 문건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더더더 전북관광 실현에 맞추어 한 곳 더, 하루 더, 한 번 더 전북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광종사자 여러분은 우리 전라북도의 얼굴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관광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민안전 최우선 추계 도로정비 착수

도내 전지역 5000여km 실시 호우로 인한 피손 등 우선 원활한 교통소통 꾀란'

전북도에서는 14시군과 함께 오는 10월 19일까지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추계 도로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도로정비 사항으로는 위임국도 259km, 지방도 1,566km, 시군도 3,152km 등 7,052노선 도내 전지역 4,977km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지방도로 피손이 급증하여 차량불편과 도민의 안전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가을맞이 도로정비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지방도로 피손이 급증하여 차량불편과 도민의 안전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가을맞이 도로정비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도로를 가꾸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비 완료 후 공로가 큰 시군에 대하여는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하고 포상해 도로정비가 앞서 갈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시설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과 결빙,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자재 비축 및 정비점검, 훼손된 차선과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효대책에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도로를 가꾸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비 완료 후 공로가 큰 시군에 대하여는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하고 포상해 도로정비가 앞서 갈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